

서울시민이 말하는 2009년 경제회고 및 2010년 희망사항

박희석 연구위원 · hspark@sdi.re.kr

한진아 연구원 · cycle13@sdi.re.kr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창의시정연구본부

- 2009년 서울경제는 금융위기로 내수침체, 소비심리위축 등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재정지출과 신성장산업 지원 정책 등으로 경기회복세에 진입함
- 그러나 실제 금융위기가 서울시민의 실생활에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살펴보고,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울시 2009년 정책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평가와 2010년에 바라는 점을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해 향후 서울시민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2010년 서울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였음
- 설문방법은 서울지역 표본 1,000가구를 대상으로 11월 23일~ 12월 4일까지 열흘간 전화 인터뷰를 이용하여 진행되었으며, 표본의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pm 3.1\%$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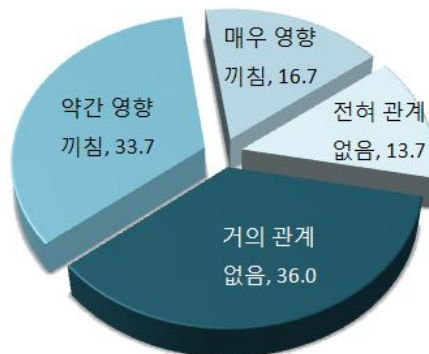
- 본 설문조사는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및 「서울특별시」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 시민의견조사에 협조해 주신 서울시 설문 담당자와 설문에 응해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I. 미국발 금융위기가 서울시민의 생활에 미친 영향

지난해 가장 큰 경제 이슈였던 미국발 금융위기가 서울시민의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금융위기 이후 ‘소득 및 소비 지출액’의 변화와 ‘저축 및 부동산가치 변화’에 대해 조사하였음

1. 종합

-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가계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서울시민은 50.4%였으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시민은 49.7%인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기로 실생활에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시민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 미국발 금융위기가 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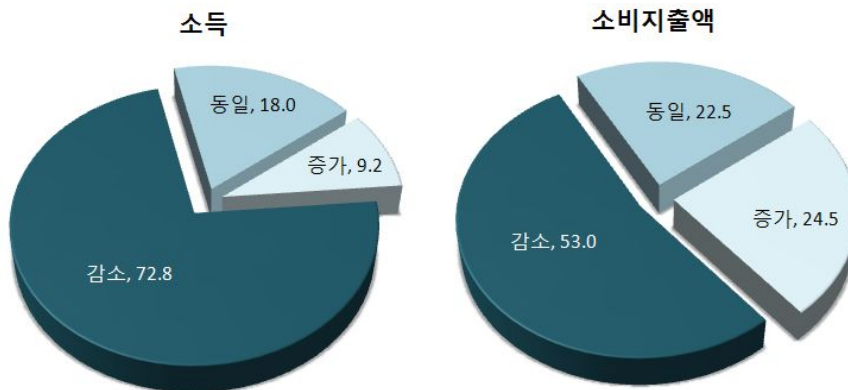
-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금융위기가 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하였음
- 3,000만원 이하의 경우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4.4%로 미국발 금융위기가 가계에 미친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3,000만원 이상의 경우 53.6%가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았다고 응답하여 소득별 응답비율의 차이를 볼 수 있었음



[그림 2] 가구소득별 미국발 금융위기가 가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단위: %)

2. 소득 및 소비지출액

-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가계에 직간접적인 변화가 있다고 응답한 511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소비지출액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함
- 소득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가구는 9.2%에 불과하고,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8%에 달함
- 한편, 소비지출액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가구는 24.5%였으며, 나머지 53.0%는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여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한 불안한 경제 상황이 금융, 유가, 환율, 주가 등으로 전이되어 시민들의 소비지출액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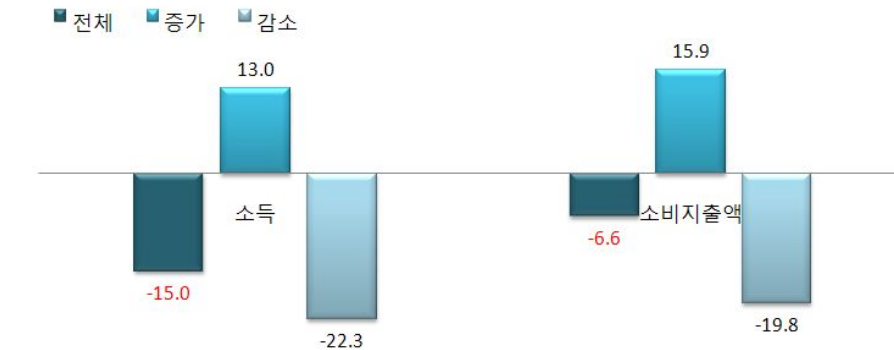
[그림 3] 소득 및 소비지출액의 변화 (단위: %)

○ 구체적인 감소액을 살펴보면 소득은 전년도에 비해 평균적으로 15.0% 감소하였고 소비지출액은 6.6% 감소함.

- 소득이 소비지출액보다 더 크게 감소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은 더 궁핍해진 것으로 판단됨

○ 소득증감 가구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평균적으로 전년대비 소득의 13.0%가 증가하였고, 감소한 가구는 22.3% 감소함.

- 또한, 소비지출액이 증가한 가구는 전년도에 비해 15.9% 증가한 반면, 감소한 가구는 19.8% 감소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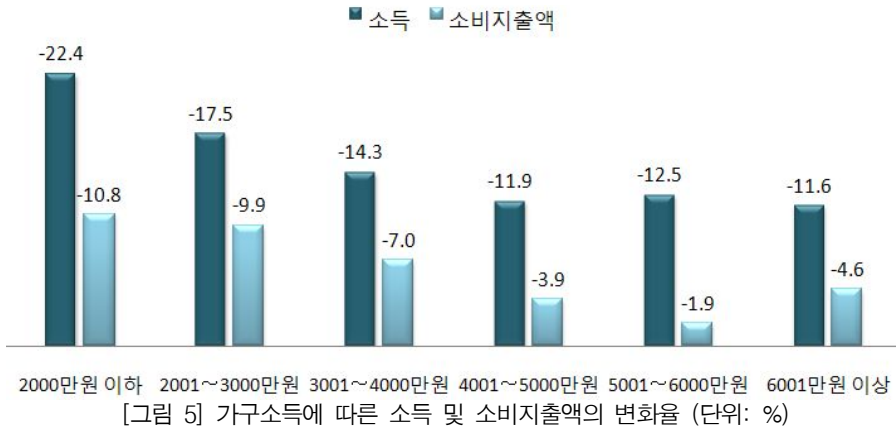


참고: 전체 1,000가구, 증가감소 511가구

[그림 4] 소득 및 소비지출액의 변화율 (단위: %)

○ 소득과 소비지출액은 대체로 2,000만원 이하로 가까워질수록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변화폭 또한 크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연소득 2,000만원 미만 가구의 2009년 소득은 전년도 대비 22.4%가 줄어들어 10%대의 감소율을 보인 다른 소득계층과 차이를 나타내어 금융위기가 양극화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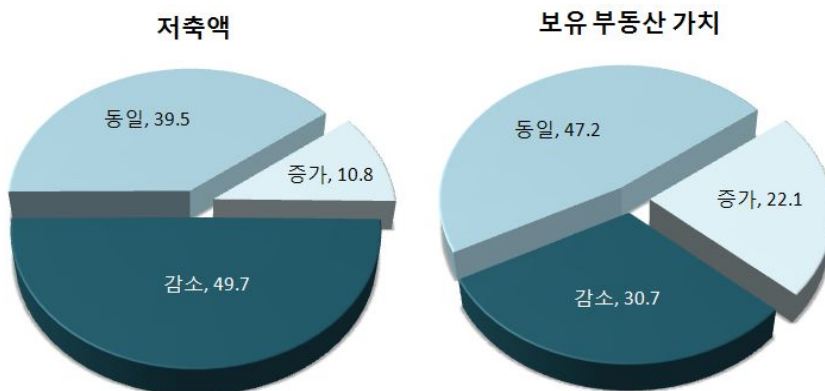


○ 연령별 소득을 살펴보면 30대 이하에서 소득이 증가했다고 응답한 비율 17.9%로 10%대 미만의 다른 연령대와 현저한 차이를 보임. 경제위기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30대 이하에서는 6.91%의 감소율을 보였지만 40~60대는 10~20% 사이의 감소율을 보임

-반면, 연령별 소비지출액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소비지출액이 증가했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저축액 및 부동산가치

○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511가구 중, 작년에 비해 저축액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가치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49.7%, 30.7%로 나타남



[그림 6] 저축액 및 보유 부동산 가치의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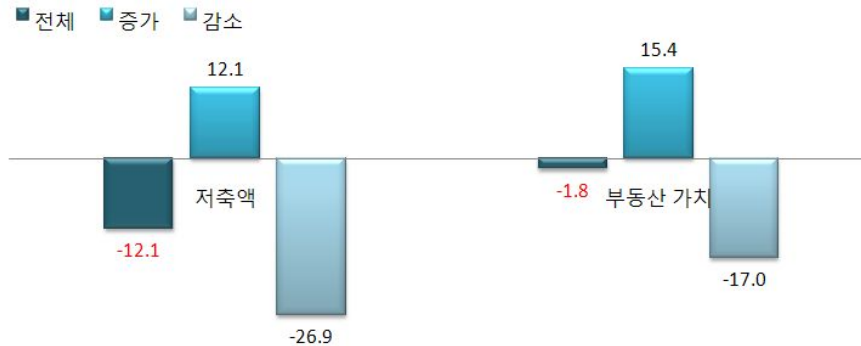
- 가구소득이 4,000만원 이하의 가구 50% 이상이 작년보다 저축액이 줄었다고 응답해 4,000만원 이상 소득계층과 다소 차이를 보임
- 연령대별로는 40~50대에서 저축액을 늘렸다고 응답한 비율이 8%대로 다른 연령대보다 저축액을 더 낮추거나 중전대로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취학자녀의 사교육비를 부담해야하는 40~50대가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 저축액을 줄인 것으로 판단됨

〈표 1〉 저축액과 보유 부동산가치의 변화

(단위: %)

구 분		빈도수	저축액			보유 부동산가치		
			증가	감소	동일	증가	감소	동일
전 체		511	10.8	49.7	39.5	22.1	30.7	47.2
소득	2000만원 이하	83	7.2	51.8	41.0	15.7	27.7	56.6
	2001~3000만원	89	5.6	57.3	37.1	15.7	40.4	43.8
	3001~4000만원	96	11.5	55.2	33.3	20.8	27.1	52.1
	4001~5000만원	83	12.0	47.0	41.0	22.9	31.3	45.8
	5001~6000만원	54	9.3	51.9	38.9	25.9	33.3	40.7
	6001만원 이상	106	17.0	37.7	45.3	31.1	26.4	42.5
연령	30대 이하	78	15.4	46.2	38.5	20.5	26.9	52.6
	40대	153	8.5	45.1	46.4	22.9	25.5	51.6
	50대	169	8.3	53.8	37.9	23.1	34.9	42.0
	60대	111	14.4	52.3	33.3	20.7	34.2	45.0

- 저축액과 부동산 가치의 변화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저축액은 전년도 대비 12.1% 감소하였으며 보유 부동산 가치는 1.8% 감소함
- 구체적으로 보면, 저축액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가구는 평균적으로 12.1% 저축액을 늘렸으며 반대로 저축액을 감소시킨 가구는 26.9%를 줄인 것으로 조사됨
- 부동산 가치의 경우는 감소율이나 증가율이 15%대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참고: 전체 1,000가구, 증가감소 511가구

[그림 7] 저축액 및 보유 부동산 가치의 변화율 (단위: %)

- 저축액의 변화율은 가구소득이 적을수록 커지고 있음. 한편 보유 부동산 가치를 보면, 6,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은 5%대 미만의 감소율을 보이지만 6,000만원 초과 계층에 서만 유일하게 0.1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금융위기로 인한 보유 부동산 가치의 변화는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부동산 가치가 증가하였 다고 응답한 비율이 커지고 있음. 소득이 높을수록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많거나 가치가 큰 만큼 고소득자일수록 올 한해 저금리 정책의 혜택을 많이 본 것으로 판단됨

<표 2> 저축액과 보유 부동산가치의 변화율

(단위: %)

구 분		빈도수	저축액	보유 부동산가치
전 체		511	-12.07	-1.82
소득	2000만원 이하	83	-17.19	-2.11
	2000~3000만원	89	-15.63	-4.26
	3000~4000만원	96	-12.90	-2.10
	4000~5000만원	83	-11.29	-1.10
	5000~6000만원	54	-9.56	-1.90
	6000만원 이상	106	-6.23	0.18
연령	30대 이하	78	-7.22	-2.13
	40대	153	-10.45	-0.51
	50대	169	-15.08	-2.40
	60대	111	-13.14	-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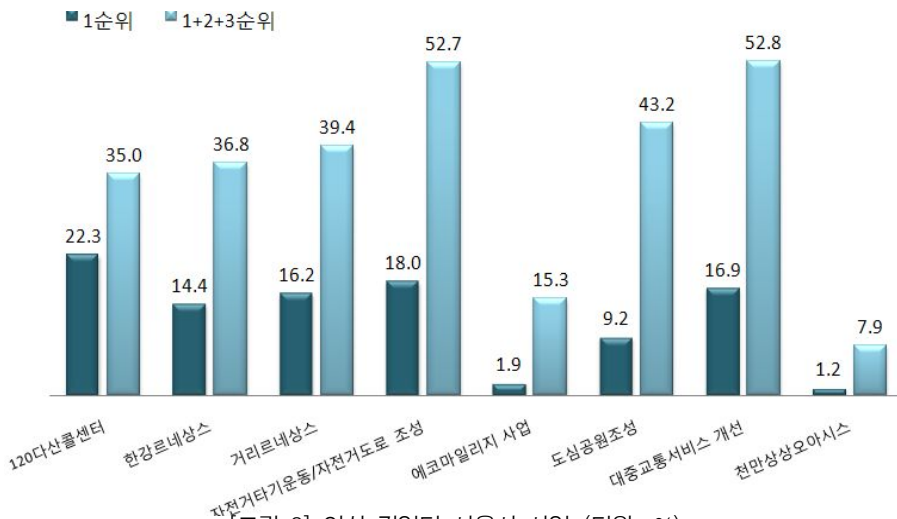
- 미국발 금융위기는 서울 시민들의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변화시킨 것으로 나타남. 가구의 소득액이 달라지면서 소비와 저축 및 투자 양상이 변했으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정책들로 인해 부동산 가치가 변화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음
- 합리적인 소비와 안정적인 투자를 하도록 유도되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II. 2009년 인상 깊은 서울시 중점사업 및 2010년 희망사항

1. 2009년 인상 깊은 서울시 중점사업

2009년 서울시 중점사업들에 관해 다수의 서울 시민들은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생활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120 다산콜센터’,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자전거타기운동/자전거도로 조성’ 사업들이 인상 깊었던 것으로 응답함

- 2009년 서울시에서 실시했던 사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업으로는 서울시와 관련된 민원을 한통의 전화로 연결해 주는 ‘120 다산콜센터’가 22.3%의 비율을 보이며 1순위로 꼽힘
- 그 다음으로는 ‘자전거타기운동/자전거도로 조성’(18.0%), 버스 보급 확대 및 고품격 시내버스 모델 도입 등의 ‘대중교통서비스 개선’(16.9%), 디자인도시 서울을 위한 “거리르네상스”(16.2%)와 살기 좋은 공간마련을 위한 ‘한강르네상스’(14.4%)와 같이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업들이 인상 깊었던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녹색도시의 일환으로 시민 고객이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에코마일리지가 쌓여 저탄소 활동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 사업’과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서울시 정책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천만상상 오아시스’는 인지도 측면에서 다른 사업들보다 낮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8] 인상 깊었던 서울시 사업 (단위: %)

- 소득별로 인상 깊었던 서울시 사업을 살펴보면, 2,000만원 이하에서는 ‘자전거 타기 운동/도로조성’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답하였고, 2,000~6,000만원 소득계층에서는 ‘120 다산 콜센터’를, 마지막으로 6,000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대중교통서비스개선’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답하였음

〈표 3〉 소득별 인상 깊었던 서울시 사업

(단위: %)

구 분		빈도	120 다산 콜센터	한강 르네상스	거리 르네상스	자전거 타기운동 도로조성	에코 마일리지	도심공원 조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천만상상 오아시스
전 체		1,015	22.3	14.4	16.2	18.0	1.9	9.2	16.9	1.2
소득	2000만원 이하	195	18.5	10.3	12.3	24.6	1.5	9.2	21.5	2.1
	2000~3000만원	193	23.8	15.5	10.9	19.2	3.6	7.8	18.1	1.0
	3000~4000만원	183	26.8	14.2	18.6	16.9	1.6	7.7	12.6	1.6
	4000~5000만원	157	29.3	14.6	19.7	15.3	0.6	10.2	10.2	0.0
	5000~6000만원	107	23.4	11.2	19.6	19.6	0.9	7.5	16.8	0.9
	6001만원 이상	180	13.3	19.4	18.3	12.2	2.2	12.2	21.1	1.1

- 연령별로는 40대 이하에서는 ‘120 다산 콜센터’가 가장 인상 깊었다고 답하였으며, 50대에서는 ‘대중교통서비스개선’을 60대에서는 ‘자전거타기운동/도로조성’이 2009년 인상 깊었던 서울시 중점 사업이라고 응답함

〈표 4〉 연령별 인상 깊었던 서울시 사업

(단위: %)

구 분		빈도	120 다산 콜센터	한강 르네상스	거리 르네상스	자전거 타기운동 도로조성	에코 마일리지	도심공원 조성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천만상상 오아시스
전 체		1,015	22.3	14.4	16.2	18.0	1.9	9.2	16.9	1.2
연령	30대 이하	153	26.8	13.1	17.0	17.0	3.3	8.5	14.4	0.0
	40대	280	27.5	15.4	17.5	15.7	1.8	7.5	13.6	1.1
	50대	326	18.7	13.2	15.3	18.4	2.1	10.7	20.6	0.9
	60대	256	18.4	15.6	15.2	20.7	0.8	9.4	17.6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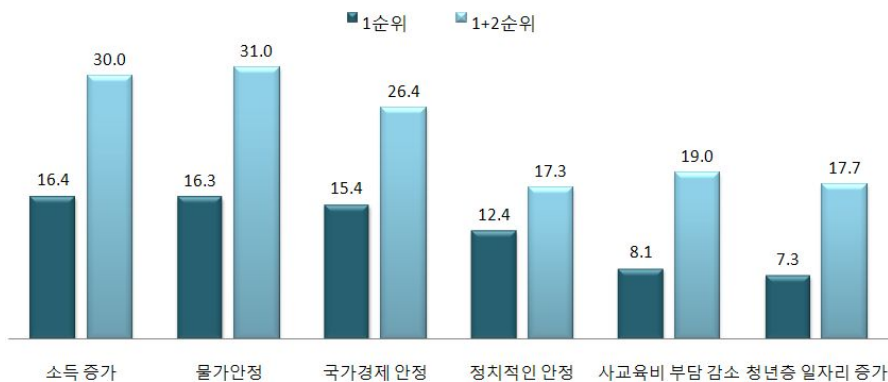
- 인상 깊은 서울시 중점사업에 관한 응답 내용 중 다수는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들이 높은 순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서울시 정책 수립 시 이와 같은 시민들의 요구 성향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됨

-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률을 나타낸 ‘에코마일리지 사업’, ‘천만상사오아시스’ 등과 같은 사업들에 관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제도를 마련한다면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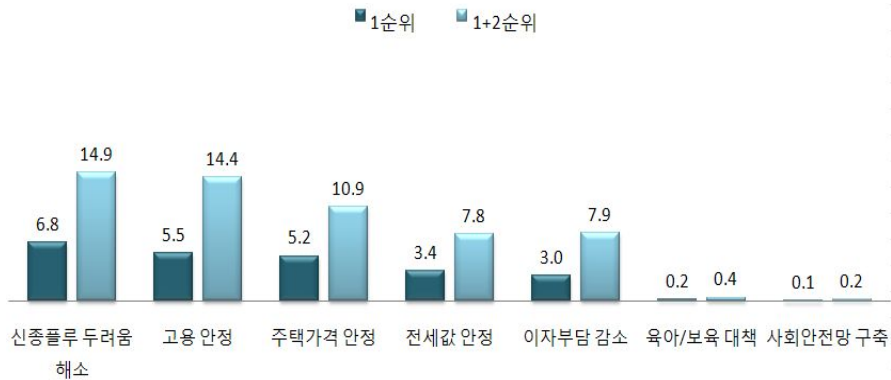
2. 2010년 서울시민의 희망사항

2010년 서울시민이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득증가’, ‘물가안정’, ‘국가 경제안정’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위기 이전의 상황처럼 경기안정을 최우선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서울 시민들에게 2009년을 보내며 2010년 국가 및 가계경제에 가장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 질문함
- 시민들은 ‘소득증가’와 ‘물가안정’, ‘국가경제 안정’ 이 평균 16%대로 가장 많이 바라고 사항으로 나타나 올 한해 줄어든 임금 및 물가상승 그리고 국가경제가 안정세를 회복하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함
- 그 다음으로는 ‘정치적 안정’ 및 ‘사교육비 부담 감소’, ‘청년층 일자리 증가’ 순으로 나타남. 그 외에 기타 의견으로 ‘육아/보육 대책’과 범죄로부터의 ‘사회안전망 구축’의 의견이 일부 있었음



[그림 9] 2010년 가장 바라는 사항 - 상위 6개 (단위: %)



[그림 10] 2010년 가장 바라는 사항 - 하위 7개 (단위: %)

- 각 가구의 특성과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바라는 사항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그 중, ‘물가안정’, ‘국가 경제의 안정’, ‘정치적인 안정’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소득증가’, ‘사교육비 부담 감소’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남.
- 2010년 서울시민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물가 및 가계안정을 위해서는 서울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 판단됨

<표 5> 연령별 2010년 가장 바라는 사항

(단위: %)

구 분		빈도	소득 증가	물가 안정	국가 경제 안정	정치 안정	사교육비 부담 감소	청년층 일자리 증가	총 신용 대출 해소	고용 안정	주택 가격 안정	전세 값 안정	이자 부담 감소	육아 보육 대책	사회 안전 망 구축
전 체		1,015	16.4	16.3	15.4	12.4	8.1	7.3	6.8	5.5	5.2	3.4	3.0	0.2	0.1
연령	30대이하	153	24.2	11.1	10.5	7.8	12.4	3.9	6.5	6.5	7.2	5.2	3.9	0.7	0.0
	40대	280	19.3	15.4	14.3	6.8	17.1	1.4	7.5	4.3	5.7	2.9	4.6	0.4	0.4
	50대	326	17.5	16.6	16.3	13.5	2.5	8.6	7.1	6.7	5.8	3.4	2.1	0.0	0.0
	60대	256	7.0	19.9	18.4	19.9	2.7	14.1	5.9	4.7	2.7	3.1	1.6	0.0	0.0

III. 정책적 시사점

금융위기 이후 서울시민의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서울시 저소득층 지원 사업의 유지·확대·보수 필요

- 서울시 계층 간 균형발전을 위해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 시급
- 세계적으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자금 투입 및 경기 부양책을 펼친 결과 금융위기가 재정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서울시 역시 투자기관의 부채 증대 등으로 향후 재정건정성 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심화된 양극화 현상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에 실시되고 있는 서민 주거 안정, 사회복지인프라 조성, 보육 환경조성 등의 저소득층 지원 사업을 보완 유지 시킬 필요함

향후 안정적인 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및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필요

- 환경, 에너지 등 그린에코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유망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및 일자리 창출
- 향후 서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인적자본 및 R&D에 기초한 환경, 에너지, 바이오 등 그린에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성장 동력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 도심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도심 특화형 중소기업(문화·관광, 애니메이션, 디자인, 패션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서울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구축